한우 방목축산 생산성 높다

수태 분만율 70%로 향상·사료비 50% 절감

전남 축산시험장 3년간 연구… 농가 보급 확대

초지에 한우를 방목하는 친환경적이고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축산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방목축산은 좁은 우리대신 충분한 햇볕과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마음껏 뛰어 다니는 초식동물로서의 본 모습을 되찾게 해주기 때문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방목축산농가는 한우 50농가를 비롯해 젖소 13·돼지 10·염소 69·사슴 12·닭 27 농가 등 모두 181 농가에 달한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시험장은 최근 3년간 방목축산 연구를 실시한 결과 과밀 사육배제 및 활발한 운동공간 확보 등 동물 복지 도입에 따른 번식률 향상과 가축분뇨의 초지 환원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 등 친환경 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축산시험장내 수태 분만율이 지난 2007년 63%였던 것이 2009년 70%로 향상되고 사료비는 1일 3kg 급여에서 1.5kg로 50%가 절감됐다.

축산시험장은 초지 11ha에 음수 및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목책으로 구획을 조성해 3년간 방목축산 연구를 벌였다.

축산시험장은 친환경 축산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연구, 친환경방목 및 자연순환농법을 이용한 풀사료 재배·생산 급여를 통한 친환경 축산 모델을 확립해 도내 축산농가에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방목 축산 및 고능력 우수정액을 활용해 태어난 송아지는 형질이 우수해 생육이 빠르고 질병에도 강해 비육 출하시 1등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도내 광역브랜드사업단의 우량 송아지 분양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우 주산단지인 장흥군의 경우 현대화된 한우사육 시설을 바탕으로 방목축산을 비롯한 환경친화적 동물복지 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해 가고 있다.

조상신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자연순환농법을 이용한 풀사료 재배 급여로 번식장애를 줄이고, 완전발효된 돈분 액비살포 및 한우축분을 이용한 목초지 조성은 친환경 방목축산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오는 12월 강진으로 축산시험장을 이전하는 대로 농가위주 동물복지형 맞춤교육 등을 강화해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갓 잡아온 멸치 말리는 어민들

완도군 완도읍 석장마을 주민들이 14일 선착장에서 갓 잡아온 멸치를 말리고 있다. 가격은 1.5㎏ 1포대에 3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명품 '강진청자' 가까이서 감상하세요

서울 시작으로 3개월간 7개 도시 순회

비색청자로 명성을 떨친 강진청자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강진군은 "15일 서울전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3개월 동안 인천·부산·광주·제주 등 전국 7개 도시 순회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시일정은 ▲서울 인사아트센터(15~21일) ▲인천(한중 문화관(28~10월 2일)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10월 3~9일) ▲울산 현대예술관(10월 15~23일) ▲광주 롯데갤러리(11월 11~17일) ▲대전 갤러리 이안(11월 25~ 12월 1일) ▲제주도 문예회관(12월 17~22일) 등으로 이어진다.

이번 전시회에는 강진관요(官窯)에서 만든 국보 재현작품 외에 향토작가들의 산수화와 영랑 김윤식 시인의 시를 새긴 청자, 역대 대통령들의 휘호가 담긴 상감청자 30여 점 등 50여 점을 선보인다.

강진에서 활동 중인 25명의 작가들이 4년간의 해외전시를 통해 터득한 나라밖 디자인 감각을 접목시켜 제작한 다양한 현대작품들도 전시된다.

특히 중국 절강성 용천시와 일본 나가사키현 하사미정의 도자기 작품들도 함께 전시돼 한·중·일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안금식 청자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가을하늘을 닮은 최고의 비색청자 중에서 엄선된 작품들로 구성됐다"며 "전시장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청자를 구입할 수 있으며, 추가제작을 원하는 관람객들의 개별접수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신안군수, 태풍 '뒷전' 상부터 챙기다니

피해현장 외면 '생산성 대상' 받기 위해 서울행

폭우로 취소된 축제에 2000만원 지원 '빈축'

박우량 신안군수가 태풍 '곤파스' 내습시 행보때문에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또 군이 우천으로 행사가 취소된 축제행사에 수천만 원을 지원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14일 신안군 흑산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일 흑산도 일대가 태풍 '곤파스'내습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직후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이윤석 국회의원 등이 현장을 찾은 반면 박 군수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의 '국가생산성 대상'수상을 위해 서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박 군수는 지난 11~12일 흑산면 예리항 일원에서 열린 '흑산홍어축제'에 왔다가 피해지역 어촌계 장도마을 이장과 피해어민 5명을 흑산도 본도로 불러 피해현황을 보고받았다.

흑산면 장도 어촌계 김창식(64)씨는 "태풍피해로 한해농사를 다 망쳐버려 주민들이 실의 빠져있는 상황에서 군수는 피해현장을 찾지 않았다"며 "피해현장이 소형 어선으로 10분 거리 밖에 안되는데도 오히려 피해주민들을 흑산 본도로 불러 피해현황을 보고받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흑산장도리 어촌계 어민들은 차량으로 신안군청 정문을 막아버리는가 하면 목포항 여객선터미널 입구에 군수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는 등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안군은 '흑산 홍어축제'일환으로 기획된 '전국 섬 등반대회'가 기상관계로 단 한사람도 산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행사추진위원회에 군비 2000만원을 지원해 말썽이 일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명사십리 피서객 2년째 100만명 넘어

다양한 이벤트 좋은 반응… 최고 휴양지로 '우뚝'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피서객 100만명을 돌파해 '남해안 최고의 휴양지'로 우뚝 서게 됐다.

14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개장한 명사십리는 잦은 비와 태풍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112만명의 피서객이 찾았다.

군은 부당요금 시비가 사라지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관광 카드제' 활성화에 따른 할인 혜택과 '1 업소 1 담당 책임제' 등에 따라 깨끗하고 편의시설이 좋은 해수욕장으로 알려지면서 피서객이 매년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해수욕장내에 이벤트광장·야외무대 등 체험공간 확보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7월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명사십리는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산소 음이온 발생량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됐었다.

한편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길이 3800m· 폭 150m에 달하는 백사장과 송림 등이 잘 갖춰져 있으며, 지난 2005년 12월 신지대교 개통이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서남해역 사설 항로표지 일제 점검

목포항만청, 내달 15일까지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정창원)은 서남해역의 해상교통 안전 및 선박 운항능률 증진을 위해 관내 사설 항로표지 68기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항로표지의 기능 및 유지관리 상태 ▲관리자 및 시설기준 적격 여부 ▲수요자 입장의 개선사항 등을 중점 실시해 시설물 관리상태가 불량한 소유자에게는 강력하게 시정조치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목포 항만청이 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는 ▲국유 326기 ▲사설 139기 등 모두 467기(전국 대비 11.7%)로, 대형 유조선과 연료 운반선 등이 출입하는 목포항 진입항로와 항만공사구역 등에 설치돼 운영하고 있다.

정창원 목포 항만청장은 "앞으로도 항로표지 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통항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쾌적한 해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화순군 죽청대교 재가설 확정

2013년 완공… 주민 숙원 해결

화순군 도곡면과 능주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죽청대교 재가설 사업이 확정됐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사업비 80억원(국비)이 추가 확정돼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오는 2013년도 완공을 목표로 죽청대교 재가설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1980년께 설치된 죽청대교는 노후된데다 교량길이(225m)가 하천 폭보다 짧아 적은 비에도 침수돼 능주면 남정리와 도곡면 죽청리·미곡리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18 광로변)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방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T.681-5666 H.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복돼지부동산

광주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급매

현대"힐스테이트" 전망 좋은 옥탑 방 급매 (192㎡ 58py)

• 총 분양가 •
5억 6천 136만

• 계 약 금 •
5613만원 납부

• 매 매 가 •
주인사정상 싸게 급매

문의 062) 364-1613
010-9005-2223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투자용)
■토지 590평 건물 4,400평 (매가200억) 보증금 100억 / 월세 5,000만원
■토지 594평 건물 725평 (매가 95억) 보증금 38억 / 월세 2,600만원 융자 12억
■토지 164평 건물 598평 (매가32억) 보증금 5억 / 월세 약 2,000만원 예상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등)
■834㎡(250평)- 매가 평당 1,300만원(콜럼버스극장과 메가박스중간사거리카도)
■3,224㎡(975평)-평당950만원
■1,651㎡(500평)-평당900만원

건물(임대용,투자용)
■(농장) 73,000㎡(2만2천평)전, 답 평당 10만원(동산동)장기투자로 좋은곳
■(공장가능) 송촌동 자연녹지 7,724㎡ (2,200천평)전(매매가평당55만원)
■(상가)상무역주변 1층 약100평 매가 평당2,300만원(브랜드의류등 적합)
■(농장)나주 산포 50,000㎡(1,5000평) 평당35만원
■(주택)안청동 토지843㎡(255평) 주택 35평 매매가 평당 85만원
■(기타용도)동림동 준주거지역(1,352평)매매가 평당 350만원(예식장, 병원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돔 감자탕 1층)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임대

60m 대로변 2,3층 450평 분할가능1층이 옷매장들로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사무실, 학원) 적합 조립, 제조회사 가능하며 지하 주차장 완비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토지 다수보유)

상업지역 토지급매

평당250만원 340평공시지가평당340만원(음식점, 음악홀) 적합중로접함

화순 남면 준보전 관리지역 1900평 매도가 평당 12만원 현재 매립되여 가건축물 있음(전원주택, 농장, 공장)적합

구함: 광주 첨단지구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있음)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토 지 매 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